

이 없는 完好한 것이 고 臺의 內部는 空洞으로 되어 있다.

생각컨대 이 方臺 역시 國立博物館의 方臺와 거의 같은 時代 즉 十一、二世紀의 것으로 產出地方 역시 같은 곳이 아닐가 생각된다. 이 方臺의 用途에 關해서 考察해 본다면 우선 지금까지 같은 종류의 유물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方臺로는 이미 말한 두개의 方臺外에 高麗 仁宗王 長陵에서 출토하였다고 전하는 方臺가 있다. ② 이 가운데 長陵 出土의 方臺 크기는 臺의一邊約一五・三cm 높이約七・二cm이며 國立博物館의 方臺와 비슷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三個의 方臺는 各各 크기는 다르다고 하였으나 그 특징적인 모양이 꼭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것으로 이 形態는 一定한 用途에 要求된 機能을 滿足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처음이 方臺가 發見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一種의 사발이라고 생각되었으나 ① 일찌기 그 잘못이 訂正되었다. 지금 그 用途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일종의 臺라고 생각되어 方臺(方形臺)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大學所藏의 方臺側面에 새겨진 眼象으로 말미암아 確證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 以上으로 方臺의 用途를 밝히는 具體的인 資料를 發見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들 三例를 자세히 觀察하므로서 어떤 示陵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即 이들 方臺에 공통되는 형태에서 裝飾的인 部分과 機能的인 要求로 서 된 部分을 찾아야 하겠다. 첫째 이 方臺의 四側面이 元來의 計劃으로서는 편편한 것이었다는 것, 이것은 國立博物館과 長陵의 臺는 그 側面의 中央部가 약간 안쪽으로 휘어들어 마치 四瓣花形으로 보이거나 大學의 方臺側面에 眼象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部分이 편편한 것이 合理的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안쪽으로 휘어진 것은 胎土가 얇고 比較的 넓기 때문에 燒成時 胎土의 收縮으로 일어나는 偶然的 형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三個의 方臺가 모두 그 上部에서 一段 좁아진 것이 있어 마치 거기에 뚜껑이나 혹은 다른 器物을 꼭 맞추어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셋째로 臺上面이 다 같이 中央部에 갈수록 傾斜되어 낮아지면 서 접시 안 바닥처럼 되고 中央에서는 方形의 平坦部가 있어 거기에 바

다 이 편편한 어떤 小器物을 安定시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의 형태가 이 方臺에 要求되는 機能의인 형태라고 생각되며 方臺의 네모가 쌍사귀처럼 된 것과 臺의 上椽과 下端의 턱은 단순한 장식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 말한 세가지의 機能의인 형태에서 類推하여 어떤 用途가 머릿속에 그려지나 그것이 固定된 생각에까지 達하지는 못한다. 方臺의 크기에는 若干의 差異가 있을 수 있고 또 王陵에서 출토된 바 있다는 條件을 참작하여 諸賢의 教唆를 바라며 今後의 새로운 資料를 期待하는 바다.

註

- ① 現在 歐羅巴展示中
- ② 역시 國立博物館所藏品임
- ③ 古蹟圖譜 七卷 所載

奉德寺梵鐘小考

洪 思 俊

韓國의 梵鐘으로 가장 오래된것은 江原道 上院寺鐘과 다음에 奉德寺鐘을 들 수 있다. 그 中 奉德寺鐘은 慶州를 訪問하는 觀客에게 없지 못할 新羅文化의 特徵的存在로서 알려져 있거니와 鐘表面의 各部 文樣을 爲始하여 아직까지 注意되지 않았던 몇가지 點에 對하여 調査한 結果를 적어 보고자 한다.

이 梵鐘의 尺數는 音管 上端에서 鐘口下八菱尖端까지가 約一一・五尺이고 下端에서 五・八一尺 上部에 鐘表에 橫으로 缺線이 둘러 있다. 大體 이 缺은 上下의 鐘體를 따로 만들어서 連續시킨 것이나 鎔範의 連續線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鎔解銅을 한꺼번에 全量을 注入치 않고 二次에 걸쳐 注入했던 關係로밖에 볼 수 없다. 筆者는 생각하건대 鎔範의 接續線이 鐘表面에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鑄物은 二次에 걸쳐서 鎔液을 注入한다면 그 前後時間의 差異가 있음으로써 接續線이 弱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구나 每日치는 鐘을 이런 弱點을 가진 二次 注入이 있을 수 없으며 鑄造에 使用되던 鎔範의 接續이 이 缺을 만들었다고 보는 바이다. 이 線을 中心해서 鐘은 上下로 區分되는데 缺線下는 鐘口의 八菱尖點을 中心해서 各部 彫刻이 되었다. 即 前後撞座, 四面飛天, 左右銘文等이 等分해서 配置되었는데 그 彫刻된 手法과 配定이 가장 自然스러워 보인다. 彫刻의 手法은

A、淳朴性이 濃厚하고

B、線條가 늘씬하면서도 두껍고

C、雄麗한 曲線은 安全感和 包容性이 있고

D、口帶八菱上의 蓮花文이 花瓣에 대해서 子房이 크다.

缺線의 上部를 보면 四面에 等間隔의 乳廓이 肩帶直下에 配置되었으며 (乳廓 上幅三·四尺 下幅三·六四尺 長二·三八五尺) 乳廓內縱橫三列의 乳座中 中央縱線이 飛天을 通해서 垂直으로 口帶 八葉 蓮花文 中心點과 一直線을 이루는데 各乳廓들이 모두 같다. 그리고 다른 鐘에서는 볼 수 없는 乳頭없는 乳座만 陽刻하였는데 乳座는 直徑四·三寸의 十八瓣 蓮花로 만들어서 美麗感을 한층 더하고 있다. 彫刻手法은

A、強勇性이 높고

B、線條가 緊張

感이 있고 纖細

하며

C、小局에 置重

하여 緻密感이

있고

D、乳座 蓮花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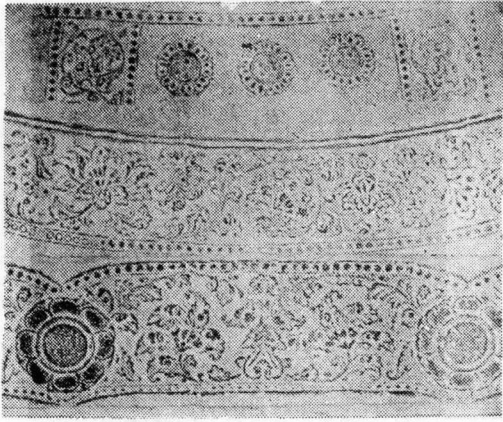
은 子房보다 花

瓣이 크다

以上 上下의 手法

差異를 생각한다면

鑄鐘工이 한 사람으



로 二例의 솜씨를 나타낸 것인지 또는 同時代의 사람으로 二人의 作品인지 或은 年代가 다른 二人의 作인지의 三者中 年代가 다른 二人의 솜씨로 보아진다. 聖德王이 二十三年 在位에 「欲鑄一大鐘一口立志未成」을 생각해서 年代差가 있는 鑄形工의 두 솜씨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며 口帶에 나타난 八葉蓮瓣은 百濟末期 瓦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솜씨이며 또 鐘의 口帶 肩帶乳廓等 上下周邊의 連珠文도 扶餘畫像埴 圓周裝飾에서 보는 感이 있다. 이러한 八瓣蓮花文은 慶州의 四天王寺址 蓮花光背、興輪寺址 蓮花拜石과 近者 出土된 皇龍寺址 蓮花文 椽木瓦에도 남아 있음에서 新羅統一後 八〇餘年까지 그러한 솜씨가 있었던 것이 立證된다. 다음에 三—五·五寸의 鎔液을 流入하던 注入口가 龍鈕 外側 左便에 縱으로 四個所와 右便 圓頂邊을 따라서 四個所 龍鈕 前後에 各一個所合 十個所가 있는데 流液이 注口위로 솜은 것을 잘라 버릴적에 조금씩 솜은 것도 있고 或은 패인 자리도 있다. 이 巨大한 鐘을 鑄造하는데는 여러 注入口를 만들고 冷却하기 前에 一時에 各注入口에 鎔液을 注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鐘 內部의 天井과 鐘壁을 살펴보면 西側(長四·三寸)과 南側(長四·五五尺)에 넓직한 銅片을 補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만한 鐘을 成就하는데는 많은 技工의 苦悶과 精誠을 다하였겠지만 鐘肩下의 厚薄調整이 좋은 音響을 내는 鑄鐘秘訣이라한 것도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吐含山頂의 破佛

鄭 明 鎬

石窟庵에서 北方約 一km되는 海拔約 六四〇m되는 吐含山 最上峰에서 破損 石佛立像을 調査하였다. 이 곳은 現在 平坦한 草原地帶로 되어 있으며 上峰에서 東南約 三尺는 곳에 中央部가 二片으로 切斷되고 顔面이